

# 「불」에 관한 우리 옛 말들

〈편 집 실〉



- 가다귀 ; 참나무 등의 잔가지로 된 땀나무
- 가리 ; 땀나무를 쌓은 더미
- 가리나무 ; 솔가지를 굶어놓은 땀나무(깎키나무)
- 가리부피 ; 나뭇단을 쌓아올린 더미의 부피
- 가시쇠 ; 가시나무의 땀나무
- 갈비 ; 불쏘시개로 쓰는 솔잎
- 강참숯 ; 순 참숯
- 검불 ; 지푸라기, 마른 풀, 낙엽 같은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
- 갯불 ; 겨를 태운 불
- 고골 ; 두메산골에서 밤에 불을 켤 때 불붙이는 관솔을 올려놓기 위하여 벽에 오목하게 뚫어 놓은 자리
- 괄다 ; 화력이 세다
- 구멍탄 ; 구멍이 여러개 뚫린 원주형의 연탄
- 군불 ; 방만 덩게 하려고 때는 불
- 꺾부기숯 ; 줄거리 나무에서 생긴 뜬 숯(줄거리-입이 다 떨어져 나간 가지)
- 꽃불 ; ① 이글이글 타오르는 파란 불  
② 흑백화약에 철분 등을 섞어 통에 넣고 점화하여 공중높이 올리는 불
- 끄느름하다 ; 아궁이에 타는 불기운이 세지않을 정도로 달아있는 상태
- 나무새 ; 여러가지 땀나무의 총칭
- 남포동 ; 등피를 씌운 석유등잔
- 냉과리 ; 덜 구워져서 연기와 냄새가 나는 숯
- 도깨비불 ; ① 원인모르게 일어난 화재  
② 어두운 밤에 묘지나 습지 등에서 인(隣) 작용으로 번쩍이는 푸른 빛의 불꽃을 미신적 관념에서 이르는 말
- 부손 ; 화로에 꽂아놓고 쓰는 작은 부삽
- 부싷질 ; 부시를 칠 때 불뚱이 박혀서 불이 붙는 물건(약쑤이나 수리치 따위의 잎사귀를 불에 볶아 비벼서 만든다)
- 불당그레 ; 아궁이에 불을 밀어 넣거나 그려내는 데 쓰는 작은 고무래
- 불땀 ; 화력이 세고 약한 정도
- 불잉걸, 잉걸 ; 불이 이글이글 핀 숯덩이
- 삼불 ; 산후에 태를 태우는 불
- 쑥대불 ; 쑥을 뜯어 말려서 단으로 만들어 붙인 불(집이나 방안의 해충을 쫓는데 쓰인다)
- 관솔 ; 소나무에서 송진이 영겨붙은 부분